

HEADLINE NEWS

일반 시민들로 ‘대중교통이용자 위원회’ 구성 (런던)

영국 런던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제반 대중교통 문제를 논의할 ‘런던대중교통이용자위원회(The London Transport Users Committee)’가 지난 7월 3일 발족되었다. 이는 기존의 ‘런던 지역승객위원회(London Regional Passengers Committee)’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서, 런던대중교통공사가 운영 또는 인가했거나 지하철공사가 제공한 시설과 서비스, 즉 버스, 경전철, 전차, 콜택시, 하상(河上) 교통수단, 도로 등을 대상으로 승객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조사,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런던 시내 및 외곽을 운행하는 국철, 런던도심-공항을 운행하는 Heathrow Express, 그리고 런던-파리-브뤼셀을 운행하는 Eurostar 등의 서비스 수준과 승객의 불편 및 요구사항 등도 조사,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교통서비스 제공기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런던 메트로폴리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의회에서 市長의 교통전략을 정밀조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24명의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철도안전심의회(Rail Safety Regulator)의 심의를 거쳐 의회가 임명했다.

(www.london.gov.uk/gla/ltuc.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공공주도로 ‘인간중심’의 도시재개발 추진 (홍콩)
- ② 2008년까지 도시계획구역 녹화율 45%로 확대 (북경)
- ③ 홍수발생시 대피시설 地圖 시민의견 수렴해 작성 (일본 : 사이타마縣 샷테市)
- ④ 주택대상 무료소방안전점검 연중 실시 (디트로이트)

도시환경

- ⑤ ‘청정에너지’ 이용률을 공공기관 전력소비량의 20% 확대 추진 (시카고)
- ⑥ 자연훼손사업 시행시 대체지에 자연재생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검토 (일본 : 사이타마縣 시키市)

도시교통

- ⑦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위해 보행자 감지 및 자동점등 시스템 설치 (샌프란시스코 / 로스앤젤레스)
- ⑧ 철도역의 장애인편의시설 위치지도 제작 (동경)

행재정

- ⑨ 개인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세금 정보 제공 (뉴욕)
- ⑩ 지하철역의 여유공간을 대상으로 점포임대사업 확대 (동경)
- ⑪ 市 산하기관의 사업목표·실적 평가하는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뉴욕)

사회복지

- ⑫ 영세민 자녀 대상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확대 시행 (로스앤젤레스)
- ⑬ 학교중퇴 청소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홍콩)

1 공공주도로 '인간중심' 의 도시재개발 추진 (홍콩)

고밀도시 홍콩은 시민생활과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을 공공주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市の 도시계획 및 토지국(Planning and Land Bureau)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개발의 기본방향과 정책지침을 작성하고, 재개발청(Urban Renewal Authority)이 집행, 실제 개발은 토지개발공사(Land Development Corporation)가 담당함으로써 토지매입에서 철거 및 개발에 이르기까지 공공주도의 개발방식을 택하고 있다. 홍콩의 재개발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철거, 수복, 보전 수법을 동원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중심의 재개발(people-centered redevelopment)'이라는 모토 아래, 재개발 구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개발로 인한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다. 홍콩의 재개발 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최근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현재 25개의 미시행 지구에다 200개의 신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홍콩은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www.info.gov.hk/gia/general/200108/16/0816114.htm)

2 2008년까지 도시계획구역 녹화율 45%로 확대 (북경)

중국 북경(北京)시는 2008년 올림픽개최 전까지 3천여년의 역사를 가진 북경에 「맑은 공기, 아름다운 환경, 양호한 생태」를 실현시킨 세계 제일의 「그린 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市녹지국은 도시계획구역의 녹화율을 45%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시민 1인당 공공 녹지면적을 평균 15m²로, 도심부의 1인당 공공 녹지면적을 6m²로 각각 향상시킬 계획이다. 市는 이 목표가 달성되면 수도 이미지에 걸맞은 녹지생태시스템이 거의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人民日報, 8. 9)

3 홍수발생시 대피시설地圖 시민의견 수렴해 작성 (일본 : 사이타마縣 샷테市)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샷테(幸手)시는 도네江 중류지역의 홍수위험 대비를 위한 대피지도 초안을 시청이나 홍보관 등 11곳에 최근 게시했다. 이는 어떤 대피지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아울러 초안은 현재 市の 대피시설이 학교 등 공공시설 21곳에 불과,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릴 때에는 1인당 약 1km²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민간시설의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있다.

또한 초안은 예상 침수깊이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대피구역과 대피장소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홍수발생지점 관련 정보도 포함시켰다. 이처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대피지도를 작성하려는 시도는 일본에서 샷테市가 처음이다.

(아사히신문, 8. 2)

4 주택대상 무료소방안전점검 연중 실시 (디트로이트)

미국 미시간州 디트로이트(Detroit)市 소방당국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 아래 시내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무료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 市소방당국은 주택의 화재위험성 검사, 화재 발생시 비상탈출방법, 화재감지기 교체 등에 대한 점검 서비스를 디트로이트市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

(www.ci.detroit.mi.us/ccsd/releases/pr071101.htm)

5 '청정에너지' 전력이용률을 공공기관 전력소비량의 20%로 확대 추진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향후 25년 동안 태양력, 풍력 등 청정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 사용을 점차 증대해 공공기관의 전체 전력구매 및 소비량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카고 市長은 전철, 가로등, 공공건물 등에 청정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바람 많은 시카고市 (Windy City)'를 미국 내에서 녹색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市의 20% 쿼터는 80메가와트의 녹색에너지를 의미하는데, 市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내에서도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8년 여름에 발생한 일련의 정전사고를 계기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市는 에너지를 다양화함으로써 특정한 한 가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hristian Science Monitor, 7. 6)

6 자연훼손사업 시행시 대체지에 자연재생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검토 (일본 : 사이타마縣 시키市)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시키(志木)시는 공공사업 등으로 훼손·파괴되는 그 지역 자연을 다른 장소에 그대로 재생토록 하는 「대체자연재생지역 조성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市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구미(歐美)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체자연재생지역 조성 관련 내용을 참조,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市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로나 공원 등 민간 또는 공공이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로 훼손·파괴되는 자연을 사전에 조사·산정해, 그 대체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은 조례는 일본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만일 조례가 제정된다면 市의 자연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 대신, 사업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 8. 8)

7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위해 보행자 감지 및 자동점등 시스템 설치 (샌프란시스코 / 로스앤젤레스)

최근 미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市는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市는 시청 앞, 「스쿨 존」 등 3곳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경우 횡단보도 바닥에서 황색 불빛이 자동 점등하는 시스템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市는 이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야간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샌호세(San Jose)市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 횡단보도 설치 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양보율이 주간에는 11%에서 49%, 야간에는 5%에서 6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야간의 보행자 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로스앤젤레스市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5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감지시스템(Smart Pedestrian Warning Project)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 향상 및 교통혼잡 완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 감지시스템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해 경고등을 켜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이 계획은 교통신호등 신설,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 서의 좌회전 신호 표시, 좌회전 전용차선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www.ci.sf.ca.us/dpt/WhatsNew.htm#xwalk)
(www.lacity.org/pressroom/press.htm)

8 철도역의 장애인편의시설 위치지도 제작 (동경)

東京都는 지난 7월 4일 都內 전체 철도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소개하는 ‘barrier free 지도’를 제작했다. 이 지도는 약 730개 역의 휠체어 이용자용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리프트·화장실, 점자형 승차권 판매기 등의 설치 유무 및 위치와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경로 등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승강구의 단차(段差)를 없앤 직행버스의 운행 현황도 노선별로 소개하고 있다. 都는 이 지도를 도민정보실에서 960엔에 판매하고 있으며, 복지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요 역의 ‘barrier free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7. 5)

9] 개인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세금 정보 제공 (뉴욕)

미국 뉴욕市는 개인 보유 부동산과 부동산관련 세금 및 공과금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市는 현재 시민들이 보유한 각 부동산별 납세 내역 및 미납세액 현황, 그리고 상수도요금, 재산세, 토지세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정보를 시민 스스로 조회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市는 개인의 부동산 관련 정보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각 개인별로 고유 코드를 부여,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nycserv.nyclink.org/nycproperty/nynav/jsp/logon.jsp)

8] 지하철역의 여유공간을 대상으로 점포임대사업 확대 (동경)

東京都는 재정수입을 위해 都營 지하철역 구내 여유공간을 대상으로 점포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都는 8월 말에 히비야(日比谷)역 구내에 카페를 개설토록 한 데 이어, 조만간 서점, 이발소 등의 점포 5개도 유치할 예정이다. 점포 임대료를 매출액의 약 10% 수준으로 정한 都교통국은 임대와 광고 수입 등으로 2000년에 약 80억엔이었던 사업 수입이 2003년에는 약 100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都는 그 동안 국도나 도로 아래에 있는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하철역 구내의 점포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1997년 10월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2000년 3월부터 신주쿠(新宿)역에 음식점과 편의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都는 사업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점포임대사업을 향후 이용객의 수요나 역의 이용계획을 고려하면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日本經濟新聞, 8. 10)

④ 市 산하기관의 사업목표실적 평가하는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뉴욕)

미국 뉴욕市는 최근 산하기관의 경영실태를 관리·평가할 수 있는 ‘Citywide Accountability Program(CAPSTAT)’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市 경찰청에서 개발해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Compstat Program’을 개선한 것으로서, 18개 산하기관의 각 사업별 목표와 실적 및 성과 그리고 기관 효율성을 관련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 주기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사업의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市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인터넷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함으로써 市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市는 엄격한 책임성이 강조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對)시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 프로그램을 市의 전 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www.nyc.gov/html/om/html/2001b/pr290-01.html)

④ 영세민 자녀 대상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확대 시행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市 전역에 걸쳐 총 101개 영세민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17,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 미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L.A.’s BEST(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음악·드라마·스포츠·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1988년 설립된 민간교육재단에 의해 그동안 추진되어 온 프로그램은 市의 교육부문 비전과 부합되어, 현재는 민간·공공 파트너십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www.lacity.org/pressroom/press.htm)

홍콩 학교중퇴 청소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홍콩)

홍콩은 학교를 중퇴한 15~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준비 및 사례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① 리더십, 자기관리, 팀워크형성 훈련, ② 취업정보 사냥과 인간관계 형성 기술, ③ 컴퓨터 활용법, ④ 구체적인 직업별 기술 훈련 등의 4개 모듈로 구성된다. 모듈 ②는 필수과정으로,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가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개인별 관심 분야 등을 토대로 적절한 프로그램 모듈을 선정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례관리자들이 각 개인별 특성에 맞춰 장기적인 직업 설계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직업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기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청소년들을 취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과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데 있다. 지금까지 총 23,000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수강생의 약 94%가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겠다고 말해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www.info.gov.hk/gia/general/200108/14/0814123.htm)